

대전가톨릭대학교
2021
자체평가연구보고서
(학부, 대학원)

2021년 12월 23일

대전가톨릭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목 차

| | |
|--------------------------------|----|
| 제 I 장 서론 | 3 |
| 1. 자체평가의 목적 | 3 |
|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 3 |
| 3. 자체평가 | 4 |
| 4. 자체평가의 추진과정 | 5 |
| 5. 자체평가 연구 위원회 | 6 |
| 제 II 장 대학 개황 | 7 |
| 1. 대학의 설립목적 | 7 |
| 2. 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적·목표 | 7 |
| 3. 중장기 발전계획 | 8 |
| 4. 행정 조직 및 기구 | 10 |
| 5. 교수 현황 | 11 |
| 6. 직원 현황 | 11 |
| 7. 학생 현황 | 11 |
| 8.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 11 |
| 9. 주요 시설 설비 현황 | 14 |
| 제 III 장 학부 및 대학원 자체평가 실시 | 15 |
| 1. 자체평가의 대상 | 15 |
| 2. 자체평가의 자료 | 15 |
| 3. 자체평가의 지표와 산출식 | 16 |
| 4.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 | 18 |
| 제 IV 장 학부 자체평가 결과 | 20 |
| 1. 학생 영역 | 20 |
| 2. 교육 영역 | 22 |
| 3. 교육여건 영역 | 24 |

| | |
|----------------------------------|-----------|
| 4. 대학재정 영역 | 28 |
| 제 V장 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 32 |
| 1. 학생 영역 | 32 |
| 2. 교육 영역 | 34 |
| 3. 대학원 재정 영역 | 35 |
| 제 VI장 평가결과의 종합 및 제언 | 37 |
| 1. 학부 종합 | 37 |
| 2. 대학원 종합 | 40 |
| 3. 제언 | 41 |
| 제 VII장 부록 | 43 |
| 1.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 43 |

제 I 장 서론

1. 자체평가의 목적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대학평가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대학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본교의 교육 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른 특수성과 독자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교육목적과 목표에 부합된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자체평가의 기본 방향은 본 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정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①대학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자기점검 평가체제 구축, ②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자체평가의 연계, ③대학의 교육여건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대학

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현황에 대한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평가를 토대로 자체평가결과 공개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및 신뢰성제공으로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한다.

2) 대학 발전계획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평가가 이루어 지며, 추진실적을 대학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체제를 정착한다.

3) 자체평가는 교육 및 연구수준에 대한 대학정보공시제의 항목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4) 대학 자체 및 외부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핵심역량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재정도입계획 및 정책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자체평가는 평가결과를 공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본 대학의 위상을 확인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다.

3. 자체평가

첫째, 평가지표는 핵심적인 지표로 구성하며, 국내의 모든 대학평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평가지표는 학생, 교육, 교육여건 및 재정부분으로 구성되며, 가톨릭성직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교의 특성상 교육여건과 재정 부분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

셋째, 자체평가의 모든 과정은 자체평가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세부적인 자체평가의 진행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다.

동시에 본 대학은 가톨릭교회의 봉사자로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 양

성이 설립 목적이며, 그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본교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자체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본교는 1998년의 1주기와 2006년의 2주기 대학종합평가 그리고 2009년 이후 2015년에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 운영과 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 그리고 사회적 책무성 및 대학 간의 협동을 통한 대학의 보편성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2021년 자체 평가는 예년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의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2025년에 이루어질 장기 평가계획에 있어 우리 대학이 타 가톨릭계 대학과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지를 가늠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하였다.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교육적 장치들에 관한 평가지표를 살펴봄으로써 드러난 문제점 내지는 간과되었던 점들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평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바탕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자체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가 공시되고 여러 대학과의 정보공유로 문제점 및 개선점이 도출된다면,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의 설립 목적과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연차적인 계획이라는 형태로 확인될 것이며, 이는 대학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4. 자체 평가의 추진과정

자체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일정을 수립하였다. 이 일정에는 자체평가 연구의 추진일정을 비롯하여 보고서 집필, 대학정보공시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평가 이후 그 결과를 학교 발전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대학의 자체평가는 수립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연구

를 담당한 연구위원과 관계되는 교직원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평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연구계획의 수립과정과 그 결과들을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공유하고자 하였다.

-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계획수립: 2021년 8월
- 자체평가 연구지표 개발 및 세부항목 자체 평가: 2021년 9월-10월
- 1차 자체 평가연구보고서: 2021년 11월
- 영역별 자체 평가 수정 보완 및 개선: 2021년 11월
- 2차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작성: 2021년 12월
- 자체평가 연구 위원회 결과 서면평가: 2021년 12월
- 자체평가 연구 결과 보고서 공시: 2021년 12월

5. 자체 평가연구 위원회

자체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자체평가 총괄 수행자를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하되 평가를 수행할 인적자원이 충분한 대학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방향 제시
- ② 평가 항목 및 세부지표 개발 및 연구
- ③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개발 및 연구
- ④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소 속 | 구 분 | 성 명 | 비 고 |
|-----|-----|-------|------|
| 신학과 | 위원장 | 이 의 정 | 총 괄 |
| | 위원 | 송 국 섭 | 학생 |
| | | 김 정 민 | 교육 |
| | | 강 동 수 | 교육여건 |
| | | 김 희 선 | 대학재정 |
| | 간 사 | 이 이 나 | |

제II장 대학 개황

1. 대학의 설립목적

본 대학은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참으로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건전한 젊은 인재들과 가톨릭사제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분의 삶을 본받고 따르려는 가톨릭 정신을 근거로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진리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다양한 학문적 방법으로 연구·고찰하고, 나아가 이를 미래 지향적으로 구현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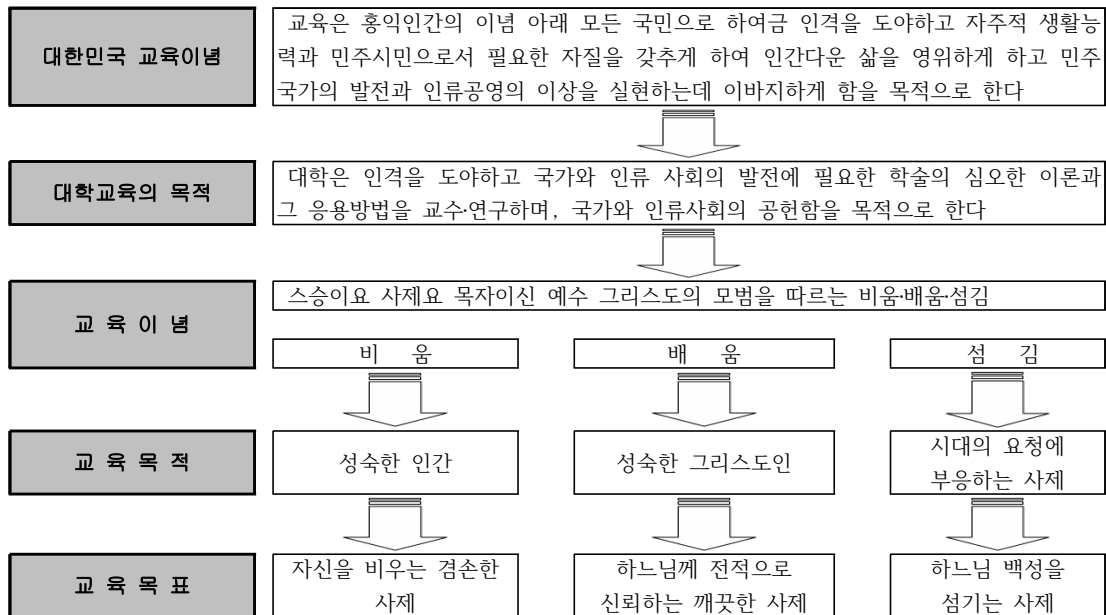
2. 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적·목표

본 대학의 교육이념은 ‘스승이시고, 사제이시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탕으로 비움, 배움, 섬기는 참된 사제 양성’에 두고 있다.

교육이념은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사제’라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목적을 통하여 구현되며, 실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교육목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다음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연계성을 개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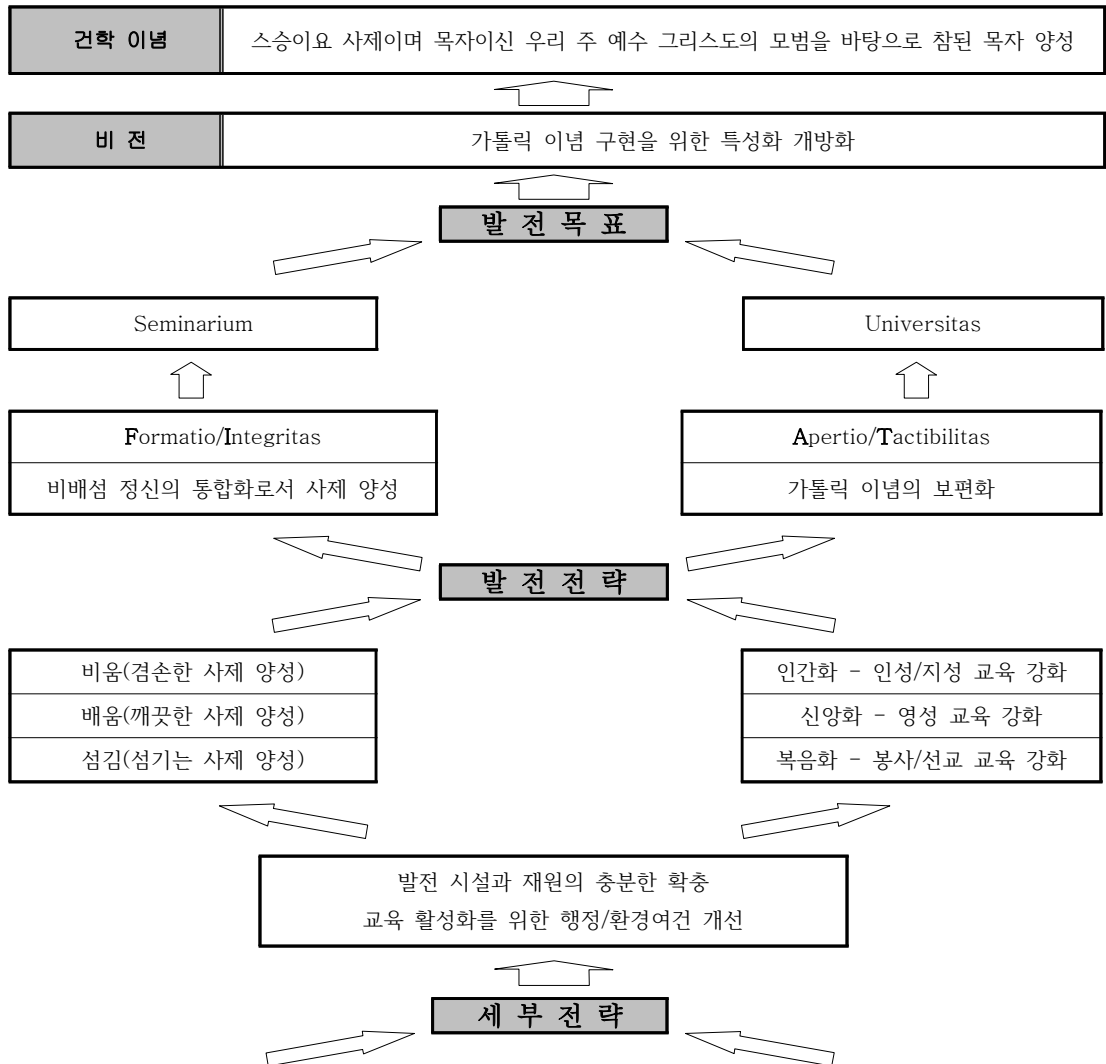
<참조>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체계도



3. 중장기 발전계획

본 대학은 1주기와 2주기 대학종합평가를 계기로 본교의 설립목적인 ‘올바른 사제 양성’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을 통하여 ‘FIAT2013’이라는 ‘대전가톨릭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보다 더 발전시켜 ‘FIAT2030’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 중에 있다.

‘FIAT2030’ 기본계획



- 비배섬 3단계 양성 계획
- Alma Mater 계획

- 평생 교육원 운영
- 국내외 대학과 교류 협력
- 연구소의 활성화
- 교구 각 성당과의 협력체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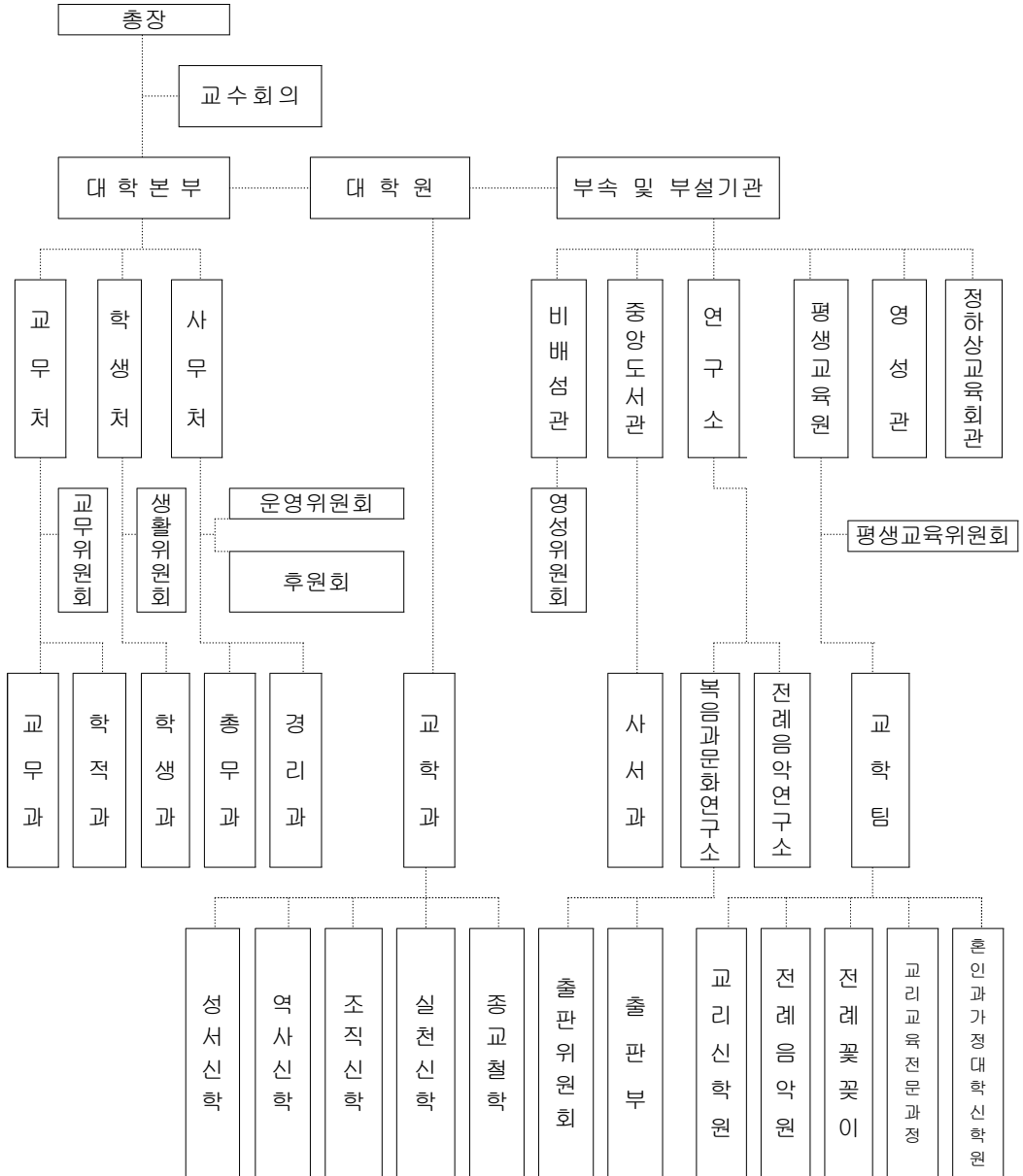
본 대학의 발전계획인 ‘FIAT2013’의 발전전략들은 ‘특성화’와 ‘개방화’라는 두 가지의 비전을 기초로 이루어진 계획이었다. ‘FIAT2013’의 발전전략들은 ‘사제 양성’이라는 본교의 특성이자 교육목표에 대한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어 ‘FIAT2030’으로 보다 성숙되고 확장 발전할 것이다.

복음을 문화에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과거의 폐쇄적 성격을 벗어나 개방함으로써,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사제 양성 특성화’와 ‘대학의 개방’이라는 비전과 이에 따른 전략들은 본교의 근본 설립이념인 ‘가톨릭 정신의 구현’을 위한 계획들이고 훌륭한 사제 양성은 사회복음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여건을 위한 대학의 노력은 아울러 사제 양성의 중요한 교육적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4. 행정 조직 및 기구

<대전 가톨릭 대학교 조직 및 기구>



5. 교수 현황

2021년 10월 1일 현재 학부와 대학원을 합한 소속 교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속 | 구분 | 전 임 교 수 | | | | 전 임 외 교 수 | | | 합계 | |
|-----|----|---------|-----|-----|----|-----------|-------|-------|----|----|
|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계 | 법정정원 | 외래 교수 | 기타 교수 | | 계 |
| 신학과 | | 0 | 0 | 12 | 12 | 12 | 21 | | 21 | 33 |
| 계 | | 0 | 0 | 12 | 12 | 12 | 21 | | 21 | 33 |

6. 직원 현황

| 구분 | 정 규 직 | | | | | | | 비정규직 (B) |
|----|-----------|-----|-----|-----|------|----|------|-------------|
| | 교육 전문직 | 일반직 | 기술직 | 기능직 | 기성회직 | 기타 | 계(A) | |
| 정원 | | 17 | 20 | | | | 37 | 0 |
| 현원 | | 9 | 6 | | | 4 | 19 | 6 |

7. 학생 현황

2021년 10월 1일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수는 학부 32명 및 일반 대학원 33명을 포함하여 총 65명이다.

■ 학생 현황(2021. 10. 1. 현재)

| 구분 | 편제 정원(A) | 재적생(B) | 휴학생(C) | 재학생 | 비고 |
|-----|----------|--------|--------|-----|----|
| 대 학 | 160 | 47 | 15 | 32 | |
| 대학원 | 135 | 43 | 10 | 33 | |
| 계 | 295 | 90 | 25 | 65 | |

8.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본 대학은 가톨릭교회에서 봉사하는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양성에 관한 교회의 보편적 · 전통적 규정과 가르침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대학의 교육목적 완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전 세계의 가톨릭계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직자 양성과정에 대한 동일 학문의 일체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있다. 본 대학은 이를 기초로 하여 고유의 가톨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육 내용을 부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원리가 되는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1965.
- 가톨릭 교육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Tria iam iustia), 1985.
- 가톨릭 교육성, 미래 사제들의 신학교육에 관한 서한(Tra i molteplici segni), 1976.
- 가톨릭 교육성, 신학교의 철학교육에 관한 회람(En sette periode), 1972.
- 가톨릭 교육성, 신학교의 전례교육에 관한 훈령(In ecclesiasticam futurorum), 1979.
- 가톨릭 교육성, 신학생들의 교회법과 교육에 관한 회람(Postremis hisce annis), 1975.
- 가톨릭 교육성, 신학교 영성 교육 중 매우 절박한 문제들에 관한 회람(The document), 1980.
- 가톨릭 교육성, 사제 양성과 교회의 사회 교리, 그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In questi ultimi decenni), 1988.
- 가톨릭 교육성, 사제 양성에 있어서 교부 연구에 관한 훈령(Inspectis dierum), 1989.
- 가톨릭 교육성, 지적 영역 교육에 있어서의 성모 마리아에 관한 회람(La seconda assemblea), 1988.
-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대신학교 교육지침(La Congregazione), 1987.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한국 사제 양성 지침, 2001.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가) 교육의 원리에 충실한 교과과정 편성: 가톨릭교회가 지니는 보편성과 오랜 역사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교회가 제시하는 교육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한다. 특히 그리스도교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전통적 학문을 가능한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봉사자로 양성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 과정 편성: 현대의 다양한 문화와 다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빛으로 조명(照明)하며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한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한다. 또한, 한국사회가 지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와 사회의 요구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 대학의 특성화: 본 대학의 교육 이념인 ‘비움 · 배움 · 섬김’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성화 정책의 목표를 ‘지식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성과 영성에 기반을 두는 봉사자’ 양성에 두면서 지역과 사회 속에 그리스도교적인 문화와 가치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인성 및 영성, 사목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대사회적인 봉사활동과 문화 활동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라) 봉사하는 인간을 지향하는 교육: 하느님의 사랑 받는 창조물로서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의 가치에 기초를 둔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노력한다.

9. 주요 시설 설비 현황

1) 교육 기본시설(2021. 10월 1일 현재)

<교육기본시설 현황>

| 구분 | | 합계 | | |
|------|--------|-------|---------|---------|
| | | 기준 | 보유 | 보유율(%) |
| 교지시설 | | 9,478 | 161,947 | 1,708.7 |
| 교사시설 | 교육기본시설 | 4,800 | 9,019 | |
| | 지원시설 | | 12,304 | |
| | 계 | | 21,323 | 444.2 |
| | 부속시설 | | 2,654 | |
| | 기타시설 | | 9,362 | |
| | 합 계 | | 33,339 | |

2) 교육지원시설

<도서관 현황>

| 구분 | | 현황 | 학생(전공) 근거지표 |
|------------------|---------|---------|--------------|
| 재학생수 | | 76 | |
| 도서관수 | | 1 | |
| 도서관직원수 | | 2 | |
| 열람좌석수 | | 143 | 학생당 1.9석 |
| 도서자료 | 국내서 | 110,481 | |
| | 국외서 | 39,010 | |
| | 계 | 149,491 | 학생1인당 1,966권 |
| 비도서자료(종) | | 6,160 | |
| 전자자료 | 국내(피키지) | 3 | |
| | 국외(피키지) | 1 | |
| 인쇄형 연속간행물 | 국내(종) | 1114 | |
| | 국외(종) | 45 | |
|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천원) | | 549.9 | |

제Ⅲ장 학부 및 대학원 자체평가실시

1. 자체평가의 대상

2021년 대전가톨릭대학교 자체평가는 학부의 경우 2019년 평가를 기본으로 학교의 대외적 경쟁력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실시하며 대학원의 경우 이를 토대로 하여 실시한다. 대학원을 학부와 별개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 대학이 신학과 1개 학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부와 동시에 대학원도 평가하는 것이 교육체계 평가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평가 방법은 비교 대학과 평가지표 상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표준적으로 지표화하고 그 지표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2. 자체평가의 자료

2021년 자체평가의 자료는 비교대학으로 선정된 조직의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이 정보의 출처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kr> 2021년 대학정보공시자료)이다. 대학정보공시자료는 각 대학이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고시된 공시항목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 자료이다. 일부자료에 대한 검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평가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지표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 되기도 하지만, 자체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시된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체평가의 자료는 자체평가의 지표로 선정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진학률과 취업률 그리고 전임교원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장학금 지급률(재학생 1인당 수혜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확보율의 9개 지표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들 정보는 모두 양적인 값으로 주어져 있다.

3. 자체평가의 지표와 산출식

가. 학부 자체평가

2021년 학부 자체평가의 지표는 3개 영역에 걸친 9개 지표로 한다. 학생·교육영역은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진학률 및 취업율로 구성되며 총 100점 가운데 10점의 비중이 주어진다. 교육여건영역은 전임교원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로 구성되며 40점의 비중이 할당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재정영역은 1인당 학생장학금지급과 교육비환원율에 각각 20점의 비중이 배당되었고 교사확보율영역에 10점의 비중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학부 영역별 평가지표>

| 합계 | 학생(5) | | 교육(5) | | 교육여건(40) | | 대학재정(50) | | |
|-----|------------|------------|------------|------------|-----------------|------------------------|------------------|------------------|------------|
| | 신입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 | 졸업생 진학율 | 졸업생 취업율 | 전임 교원 확보율 | 전임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 1인당 장학금 | 학생 1인당 교육비 | 교 사 확보율 |
| 100 | 2 | 3 | 3 | 2 | 20 | 20 | 20 | 20 | 10 |

나. 대학원 자체평가

2021년 대학원 자체평가의 지표는 3개 영역에 걸친 4개 지표로 한다. 학생·교육영역은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율로 구성되며 총 100점 가운데 60점의 비중이 주어진다. 교육여건영역은 학부와 동일하므로 제외하였으며 대학재정영역은 1인당학생장학금에 40점의 비중이 배당되었다. 학부에서 평가된 교사확보율영역은 대학원과 동일함으로 제외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 영역별 평가지표>

| 합계 | 학생(4) | | 교육(2) | 대학재정(4) |
|-----|--------|--------|--------|-----------------|
| | 신입생충원율 | 재학생충원율 | 졸업생진학율 | 학생 1인당 장 학 금 |
| 100 | 20 | 20 | 20 | 40 |

다. 평가지표별 산출 방법

평가지표 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입생총원율: 단위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4-다. 신입생총원율(2021년 1학기 신입생)

$$* \text{신입생총원율} = \frac{\text{정원내 입학자수}}{\text{정원내 모집인원}} \times 100$$

② 재학생 총원율: 단위%

4-라-1 재학생총원율(2021년 4월 1일자)

$$* \text{재학생총원율} = \frac{\text{재학생수}}{(\text{학생정원} - \text{학생모집정지인원})} \times 100$$

③ 졸업생 진학율

5-나-1 졸업생진학율(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현황)

$$* \text{진학률} = \frac{\text{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④ 취업률: 단위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5-다. 졸업생 취업현황(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현황)

$$*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 - \text{취업률 제외자}} \times 100$$

*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 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

*취업률제외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 제외 대상자

⑤ 전임교원확보율: 단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6-나. 전임교원확보율(2021년 4월 1일 기준)

$$* \text{전임교원 확보율(학생정원 기준)} = \frac{\text{학생정원기준 전임교원}}{\text{학생정원기준 교원법정정원}} \times 100$$

* 전임교원 확보율(재학생 기준) = $\frac{\text{재학생 기준 전임교원}}{\text{재학생 기준 교원 법정정원}} \times 100$

⑥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기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21년 4월 1일 기준)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편제정원) = $\frac{\text{편제정원}}{\text{전임교원수}} \times 100$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학생) = $\frac{\text{재학생}}{\text{전임교원수}} \times 100$

⑦ 장학금 지급률(재학생 1인당 수혜장학금) : 단위 천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표기

12-다-1. 장학금 수혜현황 (2020년 4월 1일 기준, 10월 1일 기준)

* 장학금 지급률(재학생 1인당 수혜장학금) = $\frac{\text{교내 및 교외 장학금의 합}}{\text{재학생수}}$

⑧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표기

* 9-가-1. 등록금 산정근거, 9-나-2.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 재학생수: 2020년 4월 1일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의 합

* 학생 1인당 교육비 = $\frac{\text{총 교육비(교비회계 + 산학협력단 회계)}}{\text{재학생수}} \times 100$

⑨ 교사시설 확보 현황:

* 14-라. 교사시설 확보 현황

* 기준면적: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기준 면적

* 2021년 4월 1일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의 합

* 교사시설 확보율(%) = $\frac{\text{기본시설} + \text{지원시설} + \text{연구시설}}{\text{기준면적}} \times 100$

4.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

2021년 대전가톨릭대학교 자체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대상과의 매칭작업은 공시자료에 제시된 지표값을 사용하고, 교육관련

지표는 학과의 신설, 학과명 변경 또는 폐과로 인해 일부 대학교에서 매칭 학과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 비교 대학의 범주 내에서 활용한다. 또한, 비교대학의 수준이 본교와 직접 매칭되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

둘째, 대전가톨릭대학교의 지표 값을 타대학과 비교하여 100점 만점으로 전환한다. 변환점수는 각 지표에 대한 절대점수 형식으로 나타내지만 아울러 비교 대학들의 점수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text{변환점수} = 50 + 50 \times \frac{(\text{대전가톨릭대지표값} - \text{최하대학 지표값})}{(\text{최고대학 지표값} - \text{최하대학 지표값})}$$

* 최고와 최하 대학의 지표 값 사이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됨
셋째, 변환점수를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각 평가지표에 대해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점수는 각 지표에 대한 비교대학들 사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 환산점수 | 등급점수 |
|--------|------|
| 100~90 | 5 |
| 89~80 | 4 |
| 79~70 | 3 |
| 69~60 | 2 |
| 59이하 | 1 |

넷째, 최종점수 및 종합 점수 산출은 지표별 개별 점수를 바탕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최종점수는 변환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등급점수를 활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각각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변환점수에 의한 최종 점수} = \frac{\text{변환점수}}{100} \times \text{가중치}$$

$$\text{*등급점수에 의한 최종 점수} = \frac{\text{등급점수}}{5} \times \text{가중치}$$

각 지표에 대한 최종 점수가 산출되면 6개 지표 값을 합산하여 종합 점수를 도출한다. 종합 점수 역시 변환점수에 의한 방식과 등급점수에 의한 방식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의해서 비교대학과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제Ⅳ장 학부 자체평가 결과

1. 학생 영역

가. 비교대학선정

비교 대학의 선정원칙은 대전가톨릭대학교와 설립 성격이 유사한 가톨릭계 대학 중 비교 가능한 5개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하였다. 다만, 가톨릭계 대학들은 각 학교 별로 고유의 설립목적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는 산술적 지표값에 의한 비교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관계로 표준적 지표값 산출과 비교우위 등의 지표산출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자료에 대한 평가는 공시기관에 의해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신입생 충원율

본 대학은 가톨릭 사제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톨릭 신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톨릭 성소의 못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제 성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일반 지원자를 제외한 입학 지원자들은 각 교구 성소국에서 사전 검증 과정을 거쳐 사제 성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한순간의 충동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단순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성소 프로그램 운영과 주기적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한 후 본 대학에 추천하고 있다.

위의 추천과정을 통해 성소의지가 확실한 지원학생들만이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당해 연도에 지원을 원해도 해도 소속 교구장의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어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신입생 지원자수 및 충원율은 일반 대학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치로 적게 나타나게 된다.

2021년 동일 목적을 가진 가톨릭계 신학과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100%, 광주가톨릭대학교 55%, 대전가톨릭대학교 17.5%, 수원가톨릭대학교 42.2%, 인천가톨릭대학교 100%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5.5%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사제성소에 대한 모집인원이 없으므로 본 항목에서 제외기로 한다.

2) 재학생 충원을

본 대학은 가톨릭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 양성을 위해 특수한 고유의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의 총 7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3년 동안 매년 가톨릭 교회법에 의한 각종 직위를 받아야 한 학년씩 진급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여야 만 비로소 가톨릭 성직자로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학생 생활면에서 보면, 7년의 교육과정 중 군 입대 기간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은 매학기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심신 수양과 가톨릭 영성훈련을 쌓게 된다. 방학기간 중에도 학생들이 속한 가톨릭성당의 본당 주임신부로 부터 지속적인 사제성소자로서의 관리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여건과 환경으로 신입학을 제외한 편입학 등의 추가적인 학생의 충원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학생에 대한 충원율은 신입생 충원율의 증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2021년도 가톨릭계 대학 중 성직지망자만을 양성하는 가톨릭계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106.5%, 인천가톨릭대학교 103%, 광주가톨릭대학교 49.4%, 수원가톨릭대학교 34.4% 대전가톨릭대학교 20%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조표 2-1> 재학생 충원 현황

| 연도 | 편제정원 | 재학생 | | | 재학생충원율(%) |
|------|------|-----|---|----|-----------|
| | | 남 | 여 | 계 | |
| 2019 | 160 | 48 | | 48 | 30 |
| 2020 | 160 | 44 | | 44 | 27.5 |
| 2021 | 160 | 32 | 1 | 33 | 20.6 |

3) 지표별 평가점수

신입생 및 재학생 총원율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보면, 신입생 총원율의 경우, 변환점수($50=50+50\times\frac{17.5-17.5}{100-17.5}$) 50점에 1등급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총원율의 경우, 변환점수는 ($50=50+50\times\frac{20-20}{106.5-20}$) 50점에 1등급으로 나타났다. 개별점수를 바탕으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신입생총원율은 1점, 재학생총원율은 1점으로 나타나 2019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성직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모두가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치상의 비교우위 판단은 의미가 없다 하겠지만 우리 대학의 현 위치를 가능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2. 교육 영역

가. 비교대학선정

교육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학은 대전가톨릭대학교와 설립 성격이 동일한 가톨릭 종교계 대학 중 비교 가능한 5개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하였고 자료에 대한 평가는 공시기관에 의해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졸업생 진학을

본 대학은 가톨릭 사제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졸업생을 배출하기 보다는 교육이념과 목표에 잘 부합된 학생이 잘 육성되어 성직자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의 총 7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에서의 신학과 철학에 대한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원에서 심도 깊은 신학과목을 마치게 된다.

가톨릭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톨릭교회법에 의거하여 학부 4학년부터 사제가 될 수 있는 대학원 기간까지 4년 동안 매년 심의를 거쳐 교회성직체계에 따른 품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톨릭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4년의 과정은 전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대학원과정과 함께 모두 이수하여야만 본인이 원하고 본교에서 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가톨릭성직자가 될 수 있게 된다.

본교의 경우 교육체계 상 2학년 수료와 동시에 군 입대 등으로 인한 휴학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 4학년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지만, 비교대상 학교들의 경우 우리 대학과 달리 졸업과 동시에 진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입대와 모라또리움(수련기간) 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 학교마다 공시된 진학률엔 약간의 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약간씩의 차는 있지만,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 등의 신분으로 수학하는 학생들은 진학하지 않고 학부과정 만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공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58.5%, 광주가톨릭대학교 70%, 대전가톨릭대학교 58.3%, 수원가톨릭대학교 90.5%, 인천가톨릭대학교 8.8%를 나타내고 있다.

<참조표 2-1> 최근 3년간 졸업생수 현황

| 졸업연도 | 졸업생수(A) | 진학자수(B) | 진학율(B/A) | 비고 |
|------|---------|---------|----------|----------|
| 2018 | 25 | 23 | 92 | 외국인유학생제외 |
| 2019 | 12 | 9 | 75 | " |
| 2020 | 14 | 10 | 71.4 | " |

2) 졸업생 취업율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부 4년과 석사학위과정 3년의 총 7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가톨릭교회의 직무(독서직/시종직)를 받고 매년 진학학년에 합당한 품위를 받아 진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반면 진급에서 누락되면 아무리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여도 사제품에 오를 수가 없게 된다.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톨릭 성소자로서 성소의지를 포기(자퇴)하지 않는다면 7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등록하여 독서직과 시종직 그리고 부제품의 가톨릭 직무를 받아야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부와 대학원 전 교육과정을 마치고 가톨릭사제가 되는 경우, 졸업생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DB자료 등에 의해 취업자로 인정되는데, 현재의 취업률 계산으로는 4학년 졸업생은 취업률이 0%이고 대학원 졸업생 취업율은 100%가까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극단에 가까운 현상을 해소하고자 2011년 8월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종교지도자 양성관련 학과로 심의, 인정을 받고 이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업제외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본 대학 외에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광주가톨릭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과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3) 지표별 평가점수

교육부분에 대한 분야별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보면, 졸업생 진학율의 경우, 변환점수($60.7=50+50 \times \frac{90.5-58.3}{90.5-8.8}$) 69.7점에 2등급을 나타냈으며, 졸업생 취업율의 경우, 변환점수는 ($100=50+50 \times \frac{100-100}{100-100}$) 100점으로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출된 개별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졸업생 진학율은 2.1점, 졸업생 취업률은 2점으로 나타났다.

3. 교육여건 영역

가. 비교대학선정

교육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학의 선정은 본교를 제외한 가톨릭계열의 5개 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성직지망자를 육성 배출하지 않는 타 대학의 신학과와 비교

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평가를 하여야 때문이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전임교원 확보율

본교는 미래의 참된 가톨릭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인 교수들로부터 철학과 신학에 관한 교수를 받아야 할 권리와 열과 성을 다하여 수학하고 생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교수진의 구성은 교내에서 상주하여 정규과정을 교육하고 가톨릭영성생활을 지도하는 교수와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하는 외래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교가 전문적인 가톨릭 사제양성이 목적이므로 교육기본법 등에서 요구하는 교원확보율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만, 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전문 외래교수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다. 교수 각 개인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은 지적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가톨릭 영성공동체 생활교육부분도 함께 하고 있다.

재학 중인 학생전원은 100%기숙사 생활을 하여 정규교과 과정과 가톨릭공동체 생활을 통한 영성교육으로 참된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교수들은 학교의 정규보직 외에 학년별 담임교수를 담당하거나 가톨릭 영성조로 편성된 일정한 인원을 담당하여 매일 학생들과 진로와 생활에 대한 면담을 하거나 가톨릭교회에서 요구하는 성사 등의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신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모두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비교 대상대학들의 전임교수 확보율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신학과의 경우 학생정원기준 180%, 재학생기준 100%를 나타내고 있고,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정원기준 160%와 재학생기준 360%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정원기준 100%확보율과 재학생기준 300%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정원기준 57.89%와 재학생기준 111.1%의 확보율을 나

타내고 있다.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경우엔 학생정원기준 57.14%와 재학생 기준 61.54%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참조표 3-1> 교수 확보 현황

| 학 과 | 학생수 | | 교 원 현 황 | | | | | | | | 전임교원확보율(%) | |
|-----|----------|---------|-----------------|------------|---------------------|---------|---------|----------|----------|----------|---------------|--------------|
| | | | 교원정원 | | 겸임 및 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수 수 | | | | | | | |
| | 학생 정원 | 재학 생 | 학생 정원 (A) | 재학 생(B) | 전임교수 현황 | | | | 외래 교수 | 계 (D) | 학생정원 (C/A) | 재학생 (C/B) |
| | | | | | 교수 | 부교 수 | 조교 수 | 계 (C) | | | | |
| 신학과 | 295 | 81 | 12 | 4 | 0 | 0 | 12 | 12 | 19 | 31 | 100 | 300 |
| 계 | 295 | 81 | 12 | 4 | 0 | 0 | 12 | 12 | 19 | 31 | 100 | 300 |

<작성 요령>

- 1)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총장은 제외함.
- 2) 『교수확보율』 과 관련하여 교원의 ‘정원(A)’는 학생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교원 현황 작성 계획’의 계열별 교원 법정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 a) 학생수는 학부와 일반대학원 재학생수의 단순합에 근거함.
- 3) a) ‘전임교수수(C)’에는 전임교수만 포함되며, 겸임교원 등은 제외함.
 - b) ‘재학생수(D)’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의 합을 기입함.
- 4) 교수확보율(계)=[겸임 및 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수수(계:계)/정원(계)]×100.
- 5) 전임교수당 학생수(계)=재학생수(계)÷전임교수수(계:계)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본교의 교수들은 학생들과 24시간을 한 장소(본교 기숙사동)에서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봉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부 4년과 대학원 2년 그리고 가톨릭 성직자인 부제품의 1년 교육과정을 거쳐야 만 가톨릭사제가 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총 7년의 교육기간 동안 교수들은 학생들의 지적능력향상과 영적능력 배양을 위해 정규교육시간외에도 생활지도에 관한 시간을 할양하여 지적·영적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교수 1인당 담당하여야 하는 학생수가 적절하지 않다면 지적인 상담과 영적인 상담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타성에 흘러갈 수 있어 수익자인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다음의 <참조표 3-2>는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살펴

본 것으로 재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학부와 대학원 학생 총 66명 대하여 전임교수 12명으로 교수1인당 6.83명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24.58명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대상학교인 가톨릭대학교는 학생정원기준 23.78명과 재학생기준 19.5명을 나타내고 있고,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정원기준 13.89명과 재학생기준 6.89명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정원기준 42.91명에 재학생기준 21.2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정원기준 34.71명에 재학생기준 31.83명을 나타내고 있다.

<참조표 3-2> 교수 1인당 학생수 현황

| 학과 | 학생수 | | 교원정원 | | 교원현황 | | | 교수 1인당 학생수 | |
|-----|----------|-----|----------|-----|----------|----------|----|------------|------|
| | 학생 정원 | 재학생 | 학생 정원 | 재학생 | 전임 교수 | 외래 교수 | 계 | 학생정원 | 재학생 |
| | | | | | | | | | |
| 신학과 | 295 | 82 | 12 | 4 | 12 | 19 | 31 | 24.58 | 6.83 |
| 계 | 295 | 82 | 12 | 4 | 12 | 19 | 31 | 24.58 | 6.83 |

<작성 요령>

- 1) 2021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총장은 제외함.
- 2) 『교수확보율』과 관련하여 교원의 ‘정원(A)’는 학생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교원 현황 작성 계획’의 계열별 교원 법정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 a) 학생수는 학부와 일반대학원 재학생수의 단순합에 근거함.
 - b) 외래교수 환산인원은 담당시간 합계(실제 수업시수)를 9로 나눈 후 소수점을 절사하고 기입함
- 3) a) ‘전임교수수(C)’에는 전임교수만 포함되며, 겸임교원 등은 제외함.
 - b) ‘재학생수(D)’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의 합을 기입함.
- 4) 교수확보율(계)=[겸임 및 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수수(계:계)/정원(계)]×100.
- 5) 전임교수당 학생수(계)=재학생수(계)÷전임교수수(계:계)

3) 지표별 평가점수

가톨릭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학에 대한 전임교원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지표별 평가는 학생정원 기준이나 재학생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교대상 대학들 뿐 만아니라 대학전국대학 상위 15%의 대학에 대한 평균과 비교하더라도 높게 평가됨으로 변환점수 100점에 5등급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한 동일유형의 대학과 비교 평가했을 경우, 학생정원 기준

변환점수 $(67.2=50+50 \times \frac{100-57.89}{180-57.89})$ 는 67.2점과 재학생기준 변환점수 $(89.9=50+50 \times \frac{300-61.54}{360-61.54})$ 는 89.9점으로 각각 2등급과 4등급의 등급점수를 환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13.44점과 17.98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동일유형의 대학과 비교 평가했을 경우, 학생정원 기준 변환점수 $(100=50+50 \times \frac{93.2-57.09}{93.2-57.09})$ 는 100점과 재학생기준 변환점수 $(64.5=50+50 \times \frac{75.42-68.17}{93.11-68.17})$ 는 64.5점으로 각각 2등급의 등급점수를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20점과 12.9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임교원확보율은 약간 높아 졌으나 학생인원이 감소하여 1인당 학생 수의 면에서는 약간씩 수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4. 대학재정 영역

가. 비교대학선정

비교 대학의 선정원칙은 대전가톨릭대학교를 제외한 동일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신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계열의 5개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하였고, 전국대학의 상위 15%에 대한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학생장학금 지급율과 1인당 교육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1인당 학생장학금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성소목적에 의해 입학하고 학업하고 있으며,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가톨릭 공동체 영성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숙사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성소자원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이 속한 성당이나 가톨릭 교구 재단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성소의지로 입학한 학생이 학교의 목적에 맞는 올바르게 참된 사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정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대학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교와 교회가 일체가 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업에 필요한 납부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속 성당에서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여 성당의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1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1차 지원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 장학금 지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인원과 금액에 제한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비 부족분은 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장학금에 대한 확충계획은 2010년도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30%이상의 학생들이 전액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총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선행 연구되었고, 2013년 학기부터는 대학원 재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참조표 4-1> 최근 2개 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

| 학년/ 학기 | 재학생 수 (A) | 평균 등록금 (B) | 교외장학금 | 교내장학금 | 전체 (D) | 학생1인당 장학금 (E=D/A) | 등록금대비 장학금 (E/B×100) |
|-----------|-----------------|------------------|--------|---------|-----------|-------------------------|---------------------------|
| 2020/1 | 44 | 2,880 | 45,151 | 74,305 | 119,456 | 2,714 | 94.2 |
| 2020/2 | 43 | 2,880 | 42,523 | 63,704 | 106,228 | 2,470 | 85.8 |
| 계 | 44 | 5,760 | 87,675 | 138,009 | 225,684 | 5,129 | 89 |

<작성 요령>

- 1) '재학생수'는 1학기의 경우 4월 1일, 2학기의 경우 10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액 단위는 천 원임.
- 2) 평균등록금 = 등록금 수입 총액 / 등록학생수(단, 등록금 수입 총액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

할 경우의 등록금 수입 총액을 의미함. 1학년의 경우 입학금은 등록금 수입 총액에서 제외함)

- 3) 장학금 수혜자 비율(계) = [전체: 인원(계)/재학생수(계)]×100.
- 4) 학생 1인당 장학금(계) = 전체금액(계)/재학생수(계).
- 5) 등록금 대비 장학금(계) = [학생 1인당 장학금(계)/평균등록금(계)]×100.

비교대상대학들의 최근 1년간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6,480천원, 광주가톨릭대학교 137천원, 대전가톨릭대학교 5,129천원, 수원가톨릭대학교 8,637천원, 인천가톨릭대학교 7,93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등록금이 전액 면제인 점을 감안하여 본 비교 평가 대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모든 대학이 재학생의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1인당 장학금이 조금씩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학생 1인당 교육비

1인당 교육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며, 납입금 책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교육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별 전공계열별로 교육비 수요가 서로 다르며,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교육비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학별 전공계열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해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과나 전공계열과, 혜택을 받고 있는 학과나 전공계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학과별 전공계열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교육비를 배분하거나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이 납부한 납입금이 학생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는 비율.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교비회계 전체의 총교육비를 재학생수로 나눈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교육비 환원율은 100%가 되어야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교육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게 된다.

비교대상대학들의 최근 1년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살펴보면, 광주가톨릭대학

교 23,120천원, 대전가톨릭대학교 40,921천원, 수원가톨릭대학교 37,812천원, 인천가톨릭대학교 16,46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25,031천원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교육비가 본교와 통합 공시되어 비교평가에서 제외하였다. 2019년 1인당 교육비와 비교했을 때 학생수가 감소한 광주와 대전 그리고 수원가톨릭대학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가톨릭대학이 조금씩 증액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 교사 확보율

교사 확보율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적 여건이다. 교사시설에는 강의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도서관과 대학본부 등의 교육기본시설, 체육관, 강당, 학생기숙사 등의 지원시설, 대학원연구실과 연구소 등의 연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가톨릭대학교의 2021년 4월 1일자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볼 때 교사 확보율은 444.2%와 재학생 기준의 2,733.7%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대상대학들의 교사확보율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는 입학정원기준 310.4%와 재학생기준 420.9%를 나타내고 있고,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입학정원기준 470.7%와 재학생기준 1,727.3%를 나타내고 있다.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입학정원기준 448.5%에 재학생기준 1,071.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입학정원기준 267.8%에 재학생기준 348.4%를 나타내고 있다.

4) 지표별 평가 점수

학생 장학금에 대한 동일유형의 대학과 비교 평가했을 경우, 변환점수 ($50=50+50 \times \frac{5,129-5,129}{8,637-5,129}$)는 50점으로 1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10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비교평가대학과의 비교평가를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 변환점수 ($100=50+50 \times \frac{40,921-16,469}{40,921-16,469}$)는 100점으로 5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20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확보율에 대한 동일유형의 대학과 비교 평가했을 경우, 학생정원 기준 변환점수 $(93.5=50+50 \times \frac{444.2-267.8}{470.7-267.8})$ 는 93.5점과 재학생기준 변환점수 $(100=50+50 \times \frac{2,733.7-348.4}{2,733.7-348.4})$ 는 100점으로 각각 5등급의 등급점수를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9.35점과 10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V 장 대학원 자체평가 결과

1. 학생 영역

가. 비교대학선정

비교 대학원의 선정은 학부와 동일하게 설립 성격이 유사한 가톨릭계 대학 중 비교 가능한 5개 내외의 대학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 하였다.

자료에 대한 평가는 공시기관에 의해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한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신입생 충원율

본 대학원은 가톨릭 사제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부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신입생들은 학부과정에서 충분히 가톨릭사제로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 대상의 모든 가톨릭계 대학원의 사정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신입생 충원율에 관해서는 모두 비슷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2021년 동일 목적을 가진 가톨릭계 대학원들의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81.8%, 광주가톨릭대학교 60%, 대전가톨릭대학교 36.7%, 수원가톨릭대학교 82.9%, 인천가톨릭대학교 37.5%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충원율과 비교했을 때

서울과 수원가톨릭대학이 20%이상 상승하고 우리 대학은 소폭 증가한 반면 광주와 인천가톨릭대학은 예년과 달리 많은 차이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2) 재학생 충원율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부4년과 대학원 3년의 총 7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원 3년 동안 매년 가톨릭 교회법에 의한 각종 직위를 받아야 한 학년씩 진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졸업하여야 가톨릭 성직자로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특수교육여건과 환경으로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충원율은 학부 신입생 충원율의 증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2021년도 가톨릭계 대학 중 성직지망자만을 양성하는 가톨릭계 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서울가톨릭대학교 58.3%, 인천가톨릭대학교 42.5%, 광주가톨릭대학교 50%, 수원가톨릭대학교 73.37% 대전가톨릭대학교 36.7%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평가자료와 비교했을 때 수원이 약 20%정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외의 학교들은 10-20%의 충원율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표별 평가점수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보면,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변환점수($50=50+50 \times \frac{36.7-36.7}{82.9-36.7}$) 50점에 1등급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변환점수는 ($50=50+50 \times \frac{47.8-36.7}{73.3-36.7}$) 50점에 1등급으로 나타났다. 개별점수를 바탕으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신입생충원율은 10점, 재학생충원율은 10점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모두가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산술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겠으나, 우리 대학의 현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2. 교육 영역

가. 비교대학선정

교육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학은 대전가톨릭대학교와 설립 성격이 동일한 가톨릭 종교계 대학 중 비교 가능한 5개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하였고 자료에 대한 평가는 공시기관에 의해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졸업생 취업율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부 4년과 석사학위과정 3년의 총 7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가톨릭교회의 직무(독서직/시종직)를 받고 매년 진학 학년에 합당한 품위를 받고 진급을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톨릭 성소자로서 성소의지를 포기(자퇴)하지 않는다면 7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등록하여 독서직과 시종직 그리고 부제품의 가톨릭 직무를 받아야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대학원과 비교 대학들은 이러한 종교계 학과라는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2011년 8월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종교지도자 양성관련 학과로 심의, 인정을 받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업제외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취업률 계산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계 학과로 취업률에 산정되지 않더라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톨릭 사제가 된 성직자들은 모두 건강공단에 가입하고 있어 취업률을 항상 100%가까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대학 외에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광주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신학과, 수원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신학과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2) 지표별 평가점수

교육부분에 대한 분야별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보면, 졸업생 취업율의 경우, 변환점수는 $(100=50+50 \times \frac{100-100}{100-100})$ 100점으로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출된 개별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졸업생 취업률은 20점으로 나타났다.

3. 대학원 재정 영역

가. 비교대학선정

비교 대학원의 선정은 대전가톨릭대학교를 제외한 동일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신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계열의 5개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1인당 학생장학금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성소목적에 의해 입학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을 수학하고 있으며,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가톨릭 공동체 영성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숙사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학생들은 학부 및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가톨릭교회 내에서 성소자원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이 속한 성당이나 가톨릭 교구 재단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성소의지로 입학한 학생이 학교의 목적에 맞는 올바르게 참된 사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정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대학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교와 교회가 일체가 되어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운영 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인원과 금액에 제한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2013년도 부터 대학원 재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비교대상대학들의 최근 1년간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6,891천원, 광주가톨릭대학교 257천원, 대전가톨릭대학교 10,052천원, 수원가톨릭대학교 15,124천원, 인천가톨릭대학교 5,56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등록금이 전액 면제인 점을 감안하여 본 비교 평가대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1인당 장학금에 대한 평가는 학부와 마찬가지로 가톨릭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1인당 장학금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2) 지표별 평가 점수

학생 장학금에 대한 동일유형의 대학원과 비교 평가했을 경우, 변환점수 $(73.5=50+50 \times \frac{10,052-5,569}{15,124-5,569})$ 는 73.5점으로 3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30.7점의 지표값을 나타냈다. 2019년도에 비해 모든 대학들의 1인당 장학금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비교평가에서도 상대적으로 2019년 평가보다 크게 앞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제VI장 평가결과의 종합 및 제언

1. 학부 종합

| 영역 | 지표 | 대전 가톨릭대 | 평균 | 최고 | 최하 | 변환 점수 | 등급 점수 | 가중치 | 최종 | | |
|----------|-----------------------|------------|---------|---------|---------|----------|----------|-----|-----------|-----------|----|
| | | | | | | | | | 변환 | 등급 | |
| 학생 | 신입생 충원율 | 17.5 | 62.9 | 100 | 17.5 | 50 | 1 | 2 | 1 | 0.4 | |
| | 재학생 충원율 | 20 | 62.7 | 106.5 | 20 | 50 | 1 | 3 | 1 | 0.6 | |
| 교육 | 졸업생 진학율 | 58.3 | 57.2 | 90.5 | 8.8 | 69.7 | 2 | 3 | 2.1 | 1.2 | |
| | 졸업생 취업율 | | | | | 100 | 5 | 2 | 2 | 2 | |
| 교육 여건 | 전임교원 확 보 율 | 학생정원 기준 | 100 | 101.5 | 180 | 57.9 | 67.2 | 2 | 20 | 13.4 4 | 8 |
| | | 재학생 기준 | 300 | 186.5 | 360 | 61.5 | 89.9 | 4 | | 17.9 8 | 16 |
| | 전임교원 1 인당 학 생 수 | 학생정원 기준 | 24.6 | 28 | 13.89 | 42.9 | 100 | 5 | 20 | 20 | 20 |
| | | 재학생 기준 | 6.8 | 17.2 | 6.83 | 31.8 | 64.5 | 2 | | 12.9 | 16 |
| 대학 재정 | 1인당학생장학금 | | 5,129 | 7,044 | 8,637 | 5,129 | 50 | 2 | 20 | 10 | 8 |
| | 1인당 교육비 | | 40,921 | 35,838 | 40,921 | 16,467 | 100 | 5 | 20 | 20 | 20 |
| | 교 사 확보율 | 학생정원 기준 | 444.2 | 374.4 | 470.7 | 267.8 | 93.5 | 5 | 10 | 9.35 | 10 |
| | | 재학생 기준 | 2,733.7 | 1,260.4 | 2,733.7 | 348.4 | 100 | 5 | | 10 | 10 |
| 총 점 | | | 학생정원 기준 | | | | | 100 | 78.8 9 | | |
| | | | 재학생 기준 | | | | | | 76.9 7 | | |

본교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교를 포함한 비교대상 대학들의 이론적인 평균은 학생정원기준으로 82.62점(영역별 변환점수: 신입생 충원율 1.55, 재학생 충원율 2.24, 졸업생 진학율 2.39, 졸업생 취업율 5, 전임교원 확보율 15.6,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14.86, 1인당 학생장학금 15.46, 1인당 교육비 17.92, 교사 확보율 7.6점)을 나타냈으며 재학생기준으로 80.79점(영역별 변환점수: 신입 충원율 1.55, 재학생 충원율 2.24, 졸업생 진학율 2.39, 졸업생 취업율 5,

전임교원 확보율 14.18,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14.14, 1인당 학생장학금 15.46, 1인당 교육비 17.92, 교사 확보율 7.91점)으로 나타났다. 본교는 학생정원기준 78.89점과 재학생기준 76.97점을 기록하였다.

비교대상대학의 평균을 2019년과 비교해볼 때 재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면에서 줄어들어 평균이 예년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또한 위의 이유로 인하여 학생정원 기준에서의 증가와는 달리 재학생 기준으로 4.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2019년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생수 기준의 교육여건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평균값이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생영역은 5점 만점에서 2점을 획득하여 30%정도 낮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신입생 충원율에서는 변동이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재학생 충원율에서 낮아져 2019년 대비 0.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중 졸업생 진학률 지표에서 5점 만점에 4.1점으로 약 20%감소하였으며 졸업생 취업률 지표에서는 100%로 19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 교육여건 영역은 40점 만점에 학생정원기준 33.44점으로 20%상승하였고 재학생기준 30.88점으로 7% 감소하였다. 대학재정영역은 50점 만점에 학생정원기준 39.35점과 재학생기준 40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평가결과를 보면, 본교는 2019년 평가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학생영역과 교육영역에서 소폭 감소하였고 그 외의 교육여건 영역과 대학 재정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지표의 가감이 서로를 상계시켜 전체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교육여건 영역과 대학재정 영역에서는 2019년과 2021년의 영역 값과는 달리 많은 지표에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비교대학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산술적으로 비교평가 할 때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부분의 학생영역에서는 2019년의 값과 마찬가지로 3/1수준에 머물렀고 학생정원 기준의 교육여건 영역 그리고 대학재정 영역의 1인당 장학금 지표에서는 평균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영역과 재학생 기준의 교육 여건 영역 그리고 1인

당 교육비와 교사 확보율 지표의 대학재정 영역에서는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재정영역의 2개 지표에서는 2017년과 2019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은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영역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학생영역의 2가지 지표 중에서 신입생 총원율과 재학생총원율 각각 1점(50%)으로 비교대학의 평균 1.55점(77%)과 2.24점(74%)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근 5년 동안의 평가를 기초로 살펴보면 비교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교대학들이 종교대학이라는 특성에 따른 지표 값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영역은 2019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영역이었지만 단지 졸업생 진학을 지표에 있어 적은 인원의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로 100%의 효과가 있었고 교육 영역이 비교대학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졸업생 진학율과 취업율은 각각 2.1점(70%)과 5점(100%)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종교계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의 특수한 교육 체계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타 비교 대학보다 진학율이 높아 상대적 우위값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교육여건 영역은 비교대상대학외의 전국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의 높은 지표값을 가질 수 있겠으나, 비교대상대학과 비교했을 경우,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임교원 확보율은 13.44점(67%)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점(100%)를 나타냈다. 그리고 재학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은 17.98점(90%)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12.9점(65%)을 나타내고 있다. 지표 값에서 알 수 있듯이 본교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지표에서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 비교평가에서는 반대로 소폭 상승하였고 평균값보다 약간 상회하였다.

대학재정영역의 지표들 중 1인당 장학금 지표를 제외한 1인당 교육비와 교사 확보율 지표는 2013년 이후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사립대학과의 비교 평가 뿐만 아니라 비교 선정 대학과의 평가에서도 비교 우위의 지표 값을 나타냈다. 1인당

장학금은 10점(50%)으로 평균치(77%)보다 4/1정도 낮게 나타났고 1인당교육비는 20점 만점에 20점(100%)을 나타내 평균치(89%)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사 확보율은 학생정원 기준의 경우 10점 만점에 9.36점(94%)를 나타내어 비교대학들의 평균값(76%)보다 높게 나타났다.

1인당 장학금의 경우 비교 대학의 지속적으로 장학금액을 확충으로 2019년에 비해 평균값보다 30%정도의 차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1인당 교육비 부분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10%정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대학원 종합

| 영역 | 지표 | 대전가톨릭대 | 평균 | 최고 | 최하 | 변환점수 | 등급점수 | 가중치 | 최종 | |
|------|----------|--------|-------|--------|-------|------|------|-----|------|----|
| | | | | | | | | | 변환 | 등급 |
| 학생 | 신입생 총원율 | 36.7 | 59.8 | 82.9 | 36.7 | 50 | 1 | 20 | 10 | 4 |
| | 재학생 총원율 | 36.7 | 52.2 | 73.3 | 36.7 | 50 | 1 | 20 | 10 | 4 |
| 교육 | 졸업생 취업율 | | | | | 100 | 5 | 20 | 20 | 20 |
| 대학재정 | 1인당학생장학금 | 10,052 | 9,409 | 15,124 | 5,569 | 73.5 | 3 | 40 | 29.4 | 24 |
| 총 점 | | | | | | | | 100 | 69.4 | |

대학원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교를 포함한 비교대상 대학원들의 이론적인 평균은 77.11점(영역별 변환점수: 신입생 총원율 14.91, 재학생 총원율 14.2, 졸업생 취업율 20, 1인당 학생장학금 28점)으로 나타났다. 본 대학원은 69.4점을 기록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생영역은 40점 만점에서 20점으로 50%, 교육영역은 20점 만점에 20점으로 100%, 대학재정영역은 40점 만점에 29.4점으로 74%이었다.

이 평가결과를 보면, 본교는 학생영역의 신입생 총원율과 재학생 총원율에서 비교대학과 비교우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과 2019년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 대해 투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 대학들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영역의 지표별로 살펴 보면, 학생영역의 2가지 지표 중에서 신입생총원을 10점(50%)과 재학생 총원을 10점(50%)으로 나타나 비교대학의 재학생 총원을 평균 14.2점(71%)보다 낮았고 신입생 총원을에서도 평균 14.92점(75%)에 비해 대략 25%정도 낮게 나타났다. 2019년 평가와 비교해 보면, 비교대학들의 재학생 총원과 신입생 총원을 평균이 각각 14%와 10%씩 감소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 대학과 비교대학과의 지표차도 동일한 비율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영역은 타 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계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의 특수한 교육체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졸업생 취업율은 비교 대학 뿐 만아니라 우리 대학원도 20점(100%)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재정 영역의 지표들 중 1인당 장학금 지표는 선정 대학원의 비교 평가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교 우위의 지표 값을 나타내고 있다. 1인당 장학금은 29.4점(76%)으로 평균치인 28점(70%)보다 6%정도 높게 나타나 2019년 평가 지표 값 차이인 2.5%보다 3.5%더 상승하여 비교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 장학금에 대한 확충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었으나 2017년 평가에서 평균치와의 차가 5%, 2019년엔 2.5%였던 것을 보면 타 대학원에서도 장학금 영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언

본교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영역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신입생 등 재학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톨릭 성소자 확보를 위해 교구 성소담당과 학교책임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는 맞춤형 입시제도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여 할 것이다.

아울러 재학 중이거나 군 입대 휴학 중인 성소자들로 하여금 주변에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세 성소의지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부 및 대학원의 교원 수급을 적절히 운용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가톨릭 교육과정에 필요한 철학과 신학과목에 대한 전공분야(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종교철학)별 교원 확충에 필요한 장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가 2019년에 이어 좀 더 세밀히 준비하여야 한다.

가톨릭계 대학들이 사립대학 전체와 비교해 볼 때 교원확보율에서 높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교원들이 철학과 신학 영역의 어느 일부분에 편중되지 않으면서도 가톨릭성직자 양성을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교과영역에 대해서 장기간의 계획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분한 교과영역에의 교원 확보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교수들은 학생교육과 교수본연의 연구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대학재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에 관한 등록금 회계가 학교 후원회의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 등으로 학생이 부담금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교내외 장학금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회계의 소요와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하여 낭비적 요인들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시 재점검함으로써 대학 재정의 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그동안 이루어진 평가영역의 비교 자료들을 재평가하고 재분석하여 대학발전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제Ⅷ장 부록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교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영역) ① 평가의 대상은 본교의 모든 기관(하부조직 및 학과·학부·전공분야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자체평가의 영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의 공시대상정보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학교발전계획 및 경영
2. 교육
3. 연구
4. 학생지원
5. 기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제3조(시기 및 공시) ① 자체평가는 매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에 의한 종합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방법, 범위 등 공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자료작성 및 실사) ① 자체평가의 해당 기관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전임교수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총장은 각 대학(원)의 특성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 개발, 평가의 시행방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평의원회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